

‘사랑과恨의 소리꾼’ 임방울 선생 일대기

‘사랑아 피를 토하라’

한승원 지음



극장(劇場) 임방울 (1905~1961·사진)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작가 한승원(75)이 펴낸 신작 ‘사랑아 피를 토하라’는 임방울의 삶과 예술을 오롯이 그려낸다. 그동안 작가는 다산 정약옹, 추사 김정희, 전봉준 등 우리 민족의 한과 혼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웅성같은 필력으로 형상화했다.

작가는 임방울의 삶과 예술을 그윽하면서도 치열하게 탐색한다. 평전과 달리 소설에는 임방울 소리의 상징성과 허구적 서사가 조화롭게 직조돼 있다.

광주 광산에서 태어난 임방울은 ‘쑥대머리’ ‘춘향가’ ‘적벽가’ ‘흥부가’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당시 그의 ‘쑥대머리’와 ‘호남가’는 120만장의 앨범이 팔릴 만큼 장안의 화제가 됐다. 세 살 배기까지도 임방울의 이름을 알 정도였다. 그의 소리가 지닌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된다.

소설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봤던 한 장면이 모티프가 되었다. 고향의 어느 청년이 꽃다운 아내와 사별한 후 무덤 주변을 잔디밭 꽃밭으로 단장한다. 청년은 산을 오르내리며 “앞산도 첩첩한데 혼은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구슬픈 소리를 읊는다.

소리는 이내 작가의 가슴을 파고든다. 후일 작가는 청년의 노래가 ‘추억’이라는 단어로, 임방울이 사랑하는 여인을 저 세상으로 보내며 부른



소리였다. 이를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랑아 피를 토하라’는 임방울 소리에 ‘필’이 꽂힌 60여년의 시간을 반영한 작품인 셈이다.

소설의 시작은 일반적인 한승원 작품의 그렇듯 토속적인 풍경 묘사다. 꿈 속 아름다운 달밤, 강변길의 서정적인 풍경은 작품을 상징적 이미지로 물들인다. 갈대밭에서 두 남녀의 만남이 있은 후, 이듬해 여자는 남자 아이를 낳는다.

임방울의 탄생은 다분히 ‘신화적’이다. 여자가 달밤의 만남을 접신(接神)으로 생각하는 연유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가 약기소리처럼 맑았고 하늘로 차올라갈 만큼 웅장했다.

방울의 아버지는 아들이 소리꾼대로 살기보다는 농사꾼으로 살기를 원한다. 국편을 전전하

는 어머니를 보고 살아온 방울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지와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든다. 유랑극단을 따라 가축을 반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방울의 내면에 깃든 신명과 역마살을 눈치챈 어머니는 그를 이끌고 소리 선생을 찾아가는다. ‘신들린 소리를 하는’ 오재익, 서편제의 공창식, 동편제의 유성준에게 소리 공부를 시킨다.

어머니는 국편에서 받은 수고비를 아들 소리 공부에 쏟아붓는다. 선생의 무릎 아래 바치며 머리를 조아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헌신 그 자체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 마을에 국을 해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사하고 만다.

소설은 임방울의 생로병사를 주축으로 여러 서사가 자연스럽게 엮인다. 첫사랑 삼례와의 이야기, 세상을 울린 작자 단가 ‘추억’을 남게 한 기생 산화와의 사랑, 시인 김영랑 등과의 우정도 펼쳐진다.

또한 당대 귀명창들과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 대립구도를 이루었던 김연수와 의 갈등과 화해도 짙진하게 그려진다. 이 모든 스토리는 뼈를 깎는 치열한 독공으로 수렴되고 마침내 방울은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

임방울은 자신의 영달이나 명예가 아닌 백성들의 설움과 한을 달래기 위해 예술혼을 불살랐다. 그의 심중에는 늘 나라 잃은 민중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자리했다. 화려한 무대보다 장터나 모래사장 등 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서기를 좋아했던 건 그 때문이다.

작가는 말한다. “평범한 한 인간인 소리꾼대

‘깊이’를 통한 이성과 마음의 근본적 성찰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우창 지음



술과 정치, 경제 체제가 지나치게 삶과 세계의 표피만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익에 맞게 세계를 왜곡하고 조종한다는 것이다.

책은 ‘깊이’를 통한 이성과 마음의 근본적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중심주의 내지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문학-생태인문학’을 추구한다. 과학적 분석과 실증, 기술 조작이 아닌 보다 넓은 자연과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성을 성찰한다.

“삶의 원리로서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이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깊은 마음’이다.”

(김영사·2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인문학 세계를 펼쳐왔던 석학 김우창 교수가 ‘깊은 마음의 생태학’을 펴냈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저자가 평생 학문의 주제로 견지한 반성적 사유와 성찰적 지혜가 담긴 지집이다. 저자는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망라한 폭넓은 지식과 심오한 통찰을 토대로 현실을 들여다본다. 동시에 그 현실을 작동하는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든다.

저자는 오늘날 이성과 마음의 문제는 공리적 처세술과 실용적 심리치료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 기

구제 금융·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사건 배후는?

‘금융으로 본 세계사’

천위루·양천 지음



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 자체의 내부적 발전 코드, 즉 ‘규율’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으로도 이해되는 이 규율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면 금융은 부를 약탈하는 도구가 되고, 화폐는 소수의 주머니로 들

1997년 IMF 구제금융,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금융은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금융 사건의 배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자리한 때문이다.

중국 린민대학 금융학 교수 천위루와 동 대학 금융학 박사인 양천이 쓴 ‘금융으로 본 세계사’는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금융의 세계를 탐색한 책이다. 저자들은 국가, 인물, 사건으로 나뉜 세계 흥망성쇠를 들여다본다. 인민계 가치 질서, 통화팽창 등 금융의 민감한 사안 등도 심도 있게 접근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들은 금융의 발전은 개인, 민족, 국가의 의지만

어간다고 한다.

또한 저자들은 서브프라임 위기는 본질적인 면에서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창조적 잠재력 소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소진한 반면 다른 하나는 정보화 창조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것이다. 인류의 이성이든 이룩한 새로운 창조만이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그마북스·1만7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사회 뒤쳐진 젊은 영혼의 파괴

‘공생충’

무라카미 류 지음



체험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 그런던 중 어떤 계기를 통해 노트북을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내용이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로부터 스스로 이탈 당해 은둔의 삶을 이어가는 한 젊은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상북스·1만3800원)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느날 문득...’

마스다 미리 지음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마스다 미리 작품 속 주인공 ‘수짱’은 환상 곁에 두고픈 존재다. 솔직담백하고, 늘 고민에 빠지고, 남에 대해 배려하는 그녀의 모습은 따뜻함을 전해준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등 ‘수짱 시리즈’는 미혼여성들에게 친구같은 책이다.

마스다 미리의 신간 만화와 산문집이 함께 나왔다. 산문집 ‘어느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는 그녀의 소소한 일상을 담담하게 펼쳐보인 책이다. 그리 길

지 않은 글이지만 그녀의 만화에서처럼 속깊은 마음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이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스킷트 생각하게 해준다.

신간 만화책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는 ‘수짱의 연애’편에 등장, 수짱과 인연을 맺은 서점 직원 ‘쓰치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서점 담겨 ‘책’을 통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북·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

유능한 사람이 왜 무능한 사람이 되는가

‘확신의 뒷’

장 프랑수아 만초니 지음



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담은 ‘확신의 뒷 : 유능한 사람이 왜 무능한 사람이 되는가’를 펴냈다. 처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저자들의 이 연구 주제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현장 리더 3000여 명이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냈다.

책은 개인 또는 조직 전체가 어떻게 ‘확신의 뒷’에 빠져드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신의 뒷을 헤쳐낼 수 있는 처방전까지 제시해 준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관리자나 팀장, 리더라면 무엇보다 이 ‘확신의 뒷’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아무리 일을 잘하는 부하직원이라도 상사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그 직원은 실제로 무능해져 버린다. 아니, 무능해져 버린다고 보다 그 상사에게만은 무능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부하직원이 한 번 실패를 하거나 낮은 성과를 내면 상사는 직원이 성공할 의지가 없거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장 프랑수아 만초니 박사와 장 루이 바르수 박사는 오랫동안 상사와 부하

신간

▲김옥균의 노외일기=‘김옥균’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한 진병팔의 역사소설.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성공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삼일천하로 혁명의 막을 내려야 했다.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제 일면 평명길에 올라 상투를 잘라야 했을 참담한 마음, 조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역사에 묻혀버린 풍운아의 내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단순히 흥미거리로 끝나는 소설이 아닌 확고한 역사 인식으로 서술된 역사소설이다. (어드북스·1만3000원)

▲유럽 사상사 산책=흔든의 유럽 사상사를 명쾌하게 풀어낸 쉽고 재미있는 철학 입문서. 철학 연구에 대한 공포를 인정받아 문화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일본의 철학자 이와타 야스오의 작품. 저자는 데카르트, 칸트, 니체 등 서양철학을 일군 수많은 철학은 모두 그리스 사상과 히브리 신앙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옥당·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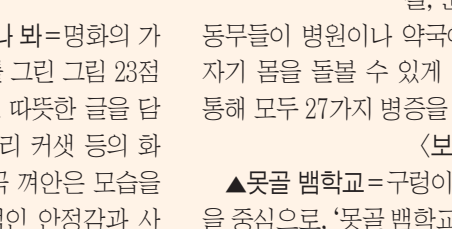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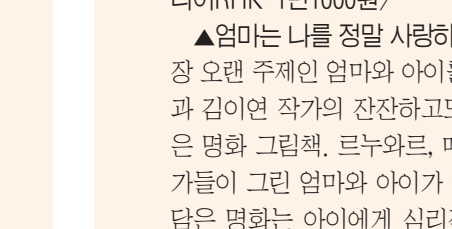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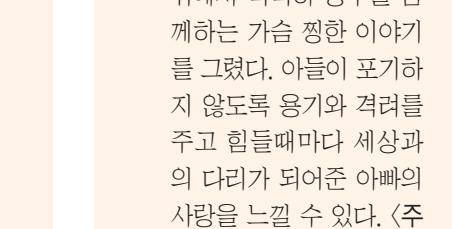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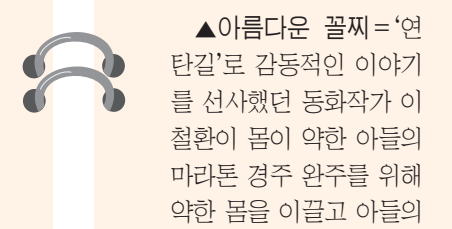
▲식민사학이 지배하는 한국고대사=건국 70년, 왜 아직도 식민사학을 이야기하는가. 일제식민사학에 의해 왜곡된 한국 고대사학계의 실상을 파헤친다. 저자는 식민사관이란 태생부터 어떤 실체가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 철저한 권력에 복종하고 현실과 야합하는 반역사적 태도를 학문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 고대사 학계에 남아 있는 식민사관을 드러내면서, 식민사관을 넘어서기 위한 해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책미래·1만4000원)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제주 민중이 온 몸으로 써내려간 4·3 일대기. 지극히 쉬운 문체로 쓰여 있지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한 자, 한 줄, 한 쪽을 허투루 지나치기가 어려운 깊이와 감동을 담고 있다. 저자는 4·3의 발단과 전개, 그 끝까지 않은 역사를 섬 사람들에게 바짝 다가와서 4·3 유적지를 동행하며 ‘그날’을 설명해주는 부록도 있다. (서해문집·1만2900원)

▲유학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전작 ‘호주 워킹홀리데이 완전정복 Q&A’ 등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김태호의 최신작.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학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유학 이야기를 과감하고 솔직히 담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유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이용해 주머니를 채우며, 유학업계를 싸잡아 비난받게 하는 몇몇 나쁜 유학원들의 행태를 낱말이 밝히고 비판했다. (고려원북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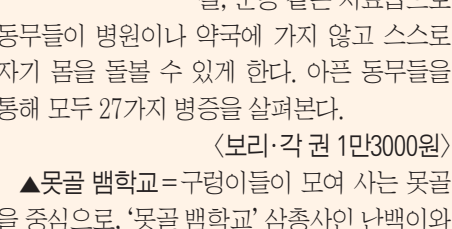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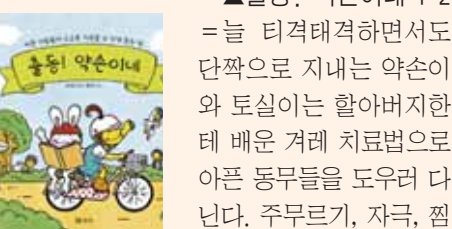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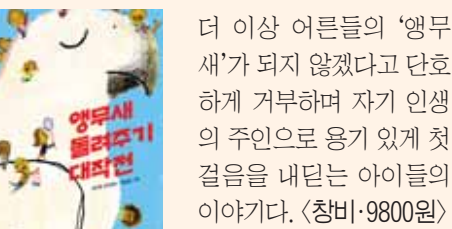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인문학 공부=다시 고전 읽기를 권하는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현직 교사인 저자는 인류 역사 전체를 내다보는 눈길로 고전을 읽어내자고 권한다.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실에서 고 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인지, 더 현실적인 답부터 마추길 권한다. 기존의 교과서가 얼마나 허튼 내용인지 짚어보고, 미래의 길잡이가 될 만한 얘기도 들려준다. (실림터·1만3000원)



▲아름다운 골짜기=‘연단길’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했던 동화작가 이철환이 몸이 약한 아들의 마라톤 경주 완주를 위해 애를 기울이고 아들의 뒤에서 묵묵히 경주를 함께하는 가슴 찡한 이야기를 그렸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고 힘들 때마다 세상과 다리가 되어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니어RHK·1만1000원)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명화의 가장 오랜 주제인 엄마와 아이를 그린 그림 23점과 김이연 작가의 잔잔하고도 따뜻한 글을 담은 명화 그림책. 르누아르, 매리 커셋 등의 화가들이 그린 엄마와 아이가 꼭 겨안은 모습을 담은 명화는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감을 선사한다. (정글북스·1만2000원)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인듯 평범해 보이지만 저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열세 살 소녀 마네 가족이 앵무새를 돌려싼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더 이상 어른들의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창비·9800원)

▲출렁! 악순이네 1-2=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단짝으로 지내는 악순이와 토실이는 할아버지한테 배운 겨레 치료법으로 아픈 동물들을 도우러 다닌다. 주무르기, 자극, 찜질, 운동 같은 치료법으로 동물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아픈 동물들을 통해 모두 27가지 병증을 살펴본다. (보리·각 권 1만3000원)

▲똥곰 뱀학교=구렁이들이 모여 사는 똥곰을 중심으로, ‘똥곰 뱀학교’ 삼촌사인 난쟁이와 누룩이, 포옹이가 가끔은 똥곰에 위기가 닥치자 서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 남을 배척하기보다 서로 나누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묵직한 주제 의식을 자연스럽게 담았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